



## 최 주 섭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상근 부회장

# 20년 회고와 새로운 시작

화려한 변신, 2002년 환경사랑 겨울호(통권 제33호) 환경칼럼에서 10년 회고의 글을 쓴 후 10년이 또 지났습니다. 새로운 10년은 2003년 1월 환경부가 도입한 생산자재활용책임제와 궤를 같이 하였습니다. 기존의 원료업체 이외에 법적인 재활용의무 생산자인 스티로폼 포장재 제조업체와 이를 제품 포장에 사용하는 업체 등 300여개소가 협회 회원사가 되었습니다. 협회는 생산자에게 부과된 연차별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 재활용센터와 민간 재활용사업자와 힘을 합하였습니다. 최종 재활용제품인 그림액자 몰딩 제조업체의 해외 수출 촉진에도 힘을 보태어, 연간 수출액이 1998년 520만 달러에서 2004년에는 6천7백만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경기 후퇴로 수출액은 감소하였지만 그림액자 몰딩과 실내건축자재용 몰딩 제품의 생산기술은 세계 1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재활용 성과는 TV매체의 기획보도 타이틀처럼 '21세기 재활용 스타', '버려진 스티로폼의 화려한 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규제 해제, 이러한 성과로 인해 2008년 1월부터 그간 사용규제에 묶였던 스티로폼 도시락용기(PSP)의 사용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소형 가전제품의 스티로폼 완충포장재도 2009년 12월 30일 사용 금지규정이 삭제되었고, 2011년 1월 6일 완구인형 및 종합제품 스티로폼 내부포장재의 사용금지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용도의 스티로폼 포장재의 사용억제 시책이 해제된 것입니다. 이어서 농산물포장 표준규격도 18개 종류로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스티로폼 포장재의 소비실적은 2010년 51,000톤에서 2011년 56,690톤, 2012년 62,489톤으로 규제 해제 후 연평균 증가율이 10.7%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까지에는 소비자와 기업과 정부의 노고가 컸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가전업체와 대형유통점의 회수재활용사업 협력, 재활용사업자들의 양질의 재생원료 및 최종제품의 생산과 수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학계와 소비자 및 환경단체, 언론사 등의 채찍과 격려도 업무 추진에 긴장을 풀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협회 회원사인 스티로폼 원료 및 포장재의 생산업체와 생산자재활용사업 공제조합 회원인 EPR 의무생산자들의 책임 분담도 큰 도움이었습니다. 끝으로 협회 직원들이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일해 준 것에 감사합니다. 2013년은 새로운 10년의 시작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자재활용책임제의 개선방향에 맞추어 또 다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겠습니다.